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200-210,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5.20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조선후기 군사 전술의 진법(陣法) 구성과 운영체계 분석

권병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Analysis of Organic Composition Principles and Operating System of Ancient Battle 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ung-Woong Kwon
Graduate School of Arts, Chung 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조선후기 병서 중『이진총방』의 진도(陣圖)를 바탕으로 고전 진법의 기본모형(陣形)을 재구성하여 진법의 구성원리와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고전진법의 기본인 방진(方陣)을 토대로 원진(圓陣), 직진(直陣), 곡진(曲陣), 예진(銳陣) 등의 오방진(五方陣)과 현무진(玄武陣),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구군진도(九軍陣圖) 등 진법의 운영체계를 재구성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진법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방진에서 출발하되 정사각, 직사각, 오각형 그리고 원형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법 내부의 진용 구성은 5가지 선형을 활용하는 바 직사각, 정사각, 대각선, 곡선, 원형 등 5가지 동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인 원진도는 기본방진에서 2중 원의 선형으로 동선체계를 갖추고, 예진도는 기본방진의 편성대열에서 여타 진법보다 최소의 동선거리로 공격적 선형을 갖춘다. 곡진도는 방패형 2중진 형태로 이동동선을 유지하고, 현무진도는 거북모양의 진형으로 좌우 균형의 5각형 동선을 형성한다. 육화진은 원이 지니는 회전력을 무기로 삼는 진법으로 좌우 및 상하 대칭으로 원주율이 같은 여섯 개의 원형동선을 형성하여 꽃잎모양의 선형(線形)을 갖춘 형태이다. 구군진도는 육화진도에서의 원형 대신 9개 정사각형 선형(線形)을 갖추는 방식이다. 팔진도는 정사각, 직사각, 십자형의 3가지 선형으로 14개 진형을 형성하며 면과 선, 외곽선과 대각선의 중층적 3중 방어체계를 갖춘 동선체계이다. 연구 성과는 군사적인 면에서 진법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전투양상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주면서, 현대전에서 병사들의 훈련에 활용가능한 병법의 유형을 제시한 점에서 군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ancient battle formation basing on the layout drawing of Yijinchongbang (manuals of learning military formations) in a strategy bo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earch topic is the principles of organic composition of battle formation and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by reforming the basic model of ancient battle formation. The research method is comparative analysis by reforming the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of types of disposition such as Obangjindisposition(Bangnjin; battle formation, Jikjin; direct battle formation, Gokjin; bend battle formation, Wonjin; round battle formation, and Yejin; keen battle formation), and Hyunmoojindo; turtle battle formation, Paljindo; all-rounder battle formation, Yookhwajindo; six flowers battle formation, Gugunjindo; nine forms battle formation. From the study results, Standoff Bombing of the battle 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ically started out from magic battle formation, but was then transformed into square, rectangle, pentagon, and circle. Also, the battle array composition used a 5-linear structure and was composed of 5 systems of circulation such as rectangle, square, diagonal, curve, and circle. The research findings elucidate the battlefield of the Joseon dynasty by establishing the real battle formation, and thus have military and academic value in suggesting possible tactics that can be used by modern training of military.

Keywords : battle formation; ancient disposition; battlefield operating system; principles of organic disposition; battle array composition

*Corresponding Author : Byung-Woong Kwon (Chung Ang Univ.)
Tel: +82-2-820-5796 email: kbw@cau.ac.kr
Received March 30, 2017 Revised (1st May 1, 2017, 2nd May 10,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진법(陣法)이란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들을 체계에 따라 배열한 전투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법은 단순한 전투대형에 대한 내용 뿐 만 아니라 당대의 여러 전투 병종((兵種)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군사(軍史)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진법의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는 군사적인 면에서 당시의 전투 양상에 대한 이해와 현대의 전투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진법을 용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진법이 전통의 생활문화로 정립되어온 군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진법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소개되지 못하였다.

전근대 한국의 군사용 진법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5세기『진법』등의 관련 서적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전근대 진법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진법서와 진법에 대해서는 하차대에 의한 진법서의 종합적인 검토 이후 최근 조선초기 진법의 구체적인 형태를 검토한 김광수, 김동경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1]**.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진법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노영구의 일련의 연구가 제출되어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 조선의 진법에 대한 실체에 보다 다가가고 있다**[2]**. 최근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크게 영향을 준 중국 명나라 진법의 하나인 척계광의 원앙진(鴛鴦陣)과 중국 고진법인 팔진(八陣)의 원리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는 등 연구의 내용과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된다**[3]**.

전근대 한국의 진법에 관해서는 역사학 분야의 연구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여러 농악, 춤사위에 나타난 진법 연구, 궁중 정재와 진법의 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악학궤범』에는 다양한 정재무도(呈才舞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원리의 상당 부분은 당시 조선의 진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악학궤범』의「定大業」에는 곡진(曲陣), 직진(直陣) 등 조선초기 오행진법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무도(舞圖)가 수록되어 있어 이 자료를 통해 전근대의 진법이 음악, 무용, 타악, 악가무의 형성 과정에서 대형과 방위, 기보법, 동선체계를 이루는데 주요한 요소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이외에도 한국 고대 농악 및 풍물 굿의 춤사위와 진법과의 연관성**[5]**, 무용 연구의 측면에서 진법이 전통놀이의 배치와 간격, 동선체계 및 동선 연구에 반영되었다는 점이 설명되기도 하였다**[6]**.

기존 관련 연구를 통해 진법에 대해서는 역사학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고, 그 진법의 원리와 각 진형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다소 간의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7]**. 이를 통해 각 진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그 동선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진법이 일련의 동작을 통해 재현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선체계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여러 진법의 연속적인 동선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진법서는 부대 단위의 진법을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 병사들의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묘사된 경우는 없다. 그것도 10명 정도의 가장 말단 단위의 기본 진형을 간략히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 말 편찬된『이진총방』(肄陣總方)은 매우 흥미로운 사료이다.

『이진총방』은 국왕의 친림(親臨) 하에 국왕의 호위 부대인 100명의 무예별감(武藝別監)들이 국왕에게 보여주는 훈련인 장조(場操)의 내용과 절차 등을 설명과 그림 등으로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병서가 대체적으로 부대 단위, 예를 들어 부(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진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이진총방』의 진도에는 무예별감 100명의 군사 위치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8]**.

따라서 조선시대 진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이진총방』이라는 조선후기 세부적인 진법을 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조선후기 병서 중 오위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이진총방』의 진도를 바탕으로 오위진법 등의 구성원리와 운영상의 동선체계를 규명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우선 진법간의 변형의 원리와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먼저 조선시대 진법의 고전인 1차 사료『이진총방』의 원전 해석을 토대로 각 구성요소를 기호화하여 진법별 비교 배치도로 디자인 하였고, 그 진법의 변형 과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즉, 변형된 각 진법들이 기본방진(基本方陣)의 배치구도를 축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각 진법별 동선체계를 교차분석 하였다.

분석요소는 좌총과 우총 휘하의 각 5개 령의 운용(領運用), 동선체계, 총 대장인 총장(統長)의 역할, 각 군사의 동선(動線), 진법구성의 특징 등 5가지를 분석요소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이진총방』에 나타난 방진(方陣), 원진(圓陣), 직진(直陣), 곡진(曲陣), 예진(銳陣) 등 오방진(五方陣)과 현무진(玄武陣),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구군진도(九軍陣圖) 등의 진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시간적으로는『이진총방』이 집필된 15세기를 기점으로 조선후기를 다룬다. 조선시대에 진법이 운용된 영역은 두 영역인데 군사적으로는 전투대형이며, 문화적으로는 전통예술영역인 악·가·무(樂歌舞)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내용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 한정하여 전투대형의 편성과 진법상의 보행, 방위, 동선 및 운영체계를 다루었다. 즉, 오방진 등 9개 진법 중 기본방진에서 각 진법의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0명 단위인 5개 령의 동선체계를 검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이진총방』의 간행 배경

『이진총방』의 간행배경과 진법훈련의 특성에 대해 노영구(2000)의 논문을 참고하여 수정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진총방』은 현재 1781년(정조 5)에 간행된 판본과 2년 후인 정조 7년에 간행된 판본 등 크게 두 판본이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이진총방』(도서번호 3157)은 정조 5년에 간행된 판본만 보존되어 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藏書閣)에는 정조 5년과 7년 두 판본이 모두 남아 있다**[9]**. 특히 장서각 소장 정조 7년 판본은 '이진총방'이라는 책명의 앞에 '어정'(御定) 두 자가 추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보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용을 서술한 '說' 부분이 진법 그림인 '도'(圖)보다 앞에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정조 5년 판본이 24개의 '설' 부분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크게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도(圖) 부분의 경우 14개에 불과한 정조 5년 판본에 비해 정조 7년 보은 20개의 그림이 새로 추가되어 있어 구체적인 훈련 재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의 간행은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이진총방』의 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이진총방』의 간행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기사가 보인다. 이에 의하면 정조 5년『이진총방』이 최초로 간행된 것은 2년 전인 정조 3년에 기존의 100명이었던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수를 50명 증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이 시기는 정조의 집권 초기 국왕권 강화를 위해 국왕 호위부대로 설치한 숙위소(宿衛所)를 담당하고 있던 대장 홍영국(洪國榮)이 실각함에 따라 숙위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된 때였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호위 부대의 신설이 요구되었으나 새로운 호위 군영(軍營) 창설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기존의 국왕 호위 병력의 하나인 무예별감을 증원하여 임시로 국왕 호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조 5년에『이진총방』이 간행된 것은 조선 전기 오위 진법을 복구하려는 궁극적인 의도와 함께 국왕의 측근 호위 군사인 무예별감의 조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정조 5년에『肄陣』(이진)을 만들고 무예별감 102인을 좌번, 우번으로 나누고, 번(番)에는 각각 1총(總)과 5령(領)을 두고 1령은 9인을 통솔하며, 1총은 5령을 통솔하게 하고, 조련을 행할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임시로 총장(統長)에 차정(差定)하여 총, 령(總・領)을 통솔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은 바로『이진총방』에서 총(總)과 령(領) 단위로 훈련시키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2.2『이진총방』에 나타난 진법훈련

『이진총방』의 구성과 진법의 훈련내용은 정조 7년의 판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가상의 적인 가왜(假倭)를 물리치는 훈련을 끝내고 나면 통장(統長)의 지휘에 따라 모든 무예별감이 함께 다양한 진형(陣形)을 익히게 된다. 이때 별진호령(別陣號令) 조의 내에 현무진(玄武陣), 육화진(六花陣), 구

군진(九軍陣), 각종 방진(方陣 : 臺上方陣, 臺下方陣)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아래 단위 부대인 총(總)이나 령(領) 단위로 방진을 치는 훈련을 한다. 진(陣)을 이룬 후에는 그 진형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게 된다[成陣後移陣]. 이 진형(陣形) 훈련 내용에서 정조 5년 판본에는 원진(圓陣), 예진(銳陣), 직진(直陣), 곡진(曲陣)을 이루는 훈련 과정을 현무진(玄武陣)을 훈련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조 7년 판본의 설명 부분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원진(圓陣), 예진(銳陣), 직진(直陣), 곡진(曲陣) 즉 오방진(五方陣) 훈련은 조선초기『진법』(陣法)에 나오는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이 진형(陣形)이 거의 잊혀졌던 것을 영조대『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간행 이후 지속적으로 그 복원을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진법서(陣法書)에서는 이 진형의 그림이 단위 부대별로 나타나 오위 진법을 미세하게 복원하기가 어려운데 비해,『이진총방』의 진법 그림은 100명 병사 각 개인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진법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규장각을 통한 정조의 조선전기 제도(制度) 복구 노력의 결산으로서 정조의 오위체제(五衛體制) 복구 노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진형(陣形)을 옮기는 훈련을 마치고 다시금 가왜(假倭)가 공격하는 상황[假倭號令]과 주간에 야간 상황[晝習夜營]을 재현한다.

정조 7년『이진총방』에는 정조 5년 판본과 달리 야간 조련[夜操]에 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어 있는데 입장(入場)에서 승기(升旗)까지의 동작은 주간의 조련 내용과 동일하다. 주간의 조련 내용과 다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영을 설치하고[安營], 야간에 사용하는 암호를 전달하고[夜號], 이어서 명령에 따라 등불을 켠다[燃燈]. 그리고 야간 순찰 명령을 하달하고 [發放夜巡], 시각이 바뀔 때마다 경전(更箭)을 전달하면서 순찰하게 한다[起更傳箭]. 그리고 적이 나타났다는 경보를 만났을 때에는 주간의 100보 이내와 달리 50보 이내로 접근하면서 일제히 방포(放砲)하게 하는데[遇警]. 우리 군사가 사격을 함에 따라 우리 령(營)의 위치가 정확히 적군에게 파악되게 됨으로 현재의 령(營)을 다른 위치로 몰래 옮기고, 적이 다시 공격하게 되면 기병(奇兵), 복병(伏兵)을 이용하여 협공할 수 있도록 한다[明營暗徙]. 진영을 옮겨 적이 이전의 진영(陣營)을 공격할 때 좌우에서 협공하도록 하는 이 전법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후 시간이 지나 5경(更)이 되면 령(營)을 거두고 철수하게 한다[收營].

Ⅲ. 진법 구성의 원리와 운영체계

앞서 보았듯이 방진, 원진 등의 오방진과 팔진, 현무진 등의 고전 진법은 조선초기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기효신서』의 영향을 받아 조선 군사훈련의 기준이 되었던『병학지남』(兵學指南)에서는 방진(方陣)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운용되지는 못하였다**[11]**.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병학지남』의 방진이 청의 기병을 막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진법의 도입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조선전기 기병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조선전기의 오위진법(五衛陣法), 즉 오행진(五方陣)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12]**. 아울러 새로운 진법이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18세기 전반인 1736년(영조 12)에 실시된 군사 훈련인 열무(閱武)에서는 현무진(玄武陣) 훈련이 이루어졌다**[13]**. 현무진의 형태는 거북이가 누운 모습을 띠고 있는 진형이었다. 아울러『무경칠서』(武經七書)와 같은 중국의 고전 병서가 재인식되고 그 내에 수록된 고전 진법인 팔진(八陣)과 육화진(六花陣) 등이 검토되었다**[14]**.

17세기 후반 이후 다양하게 시도된 오방진, 현무진과 팔진 등 고전 진법의 원리 이해와 구체적인 시험 등을 통해 조선군의 군사 훈련에 실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18세기 편찬된 여러 진법서에 실리게 되는데,『이진총방』의 원진(圓陣), 직진(直陣), 곡진(曲陣), 예진(銳陣) 등 오방진(五方陣)과 현무진(玄武陣),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구군진도(九軍陣圖)는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분석내용은 본 연구를 통해서 기본방진(方陣)이 다양한 진법으로 변형태를 이루는 과정을 기호화하여 진법의 유형별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진법별 도형을 배치도로 재구성하여 시각화(디자인: 김여진) 하였고, 각 진법을 기본방진과 교차 비교한 것이다. 즉, 기본이 되는 방진의 병사 배치구도와 변형된 진법들의 병사 배치구도를 교차시켜서 각 진법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 그 과정과 동선의 운영체계를 다룬 것이다. 비교의 준거는 진법의 변형태마다 기본모형, 령의 운용, 동선

의 기본체계, 총장의 역할, 병사의 동선 그리고 진법 구성의 특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3.1 진법의 기본형 방진(方陣)의 구성원리와 체계

「일로행열진변위방영도」(一路行列陣變位防營圖)에 나타나 있듯이 진법의 기본형인 방진의 기본모형은 Fig. 1과 같이 정사각형 구조의 내·외 2중의 직선형 행렬진형태를 지닌다. 진의 중심은 총장이며 정사각형 배치구성과 내외 2중으로 직선의 선형(線形)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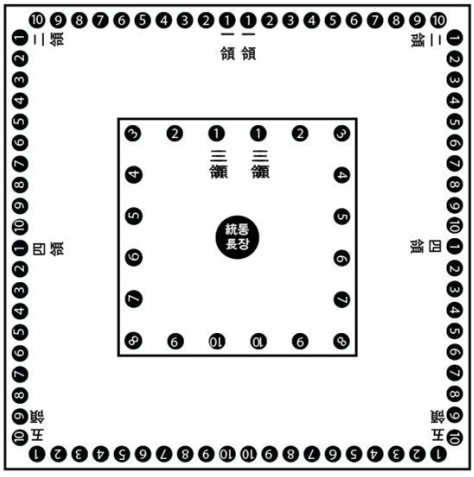

Fig. 1. Basic model of ancient battle formation(方陣)

기본 방진에서 1령과 2령이 중간 상위를 담당하고 4령과 5령이 하위방위를 담당한다. 3령이 외곽진의 내부에서 사각을 이루며 좌우 각 10명씩 배치되는 방식으로 사각을 이룬다. 기본 편대인원은 100명이며 여기에 총장이 중심에 배치된다. 외각진에는 80명으로 진을 짜고, 내각진에 20명으로 짠다.

이 때 좌총과 우총의 편성인원수가 동수라서 방진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1령의 기준은 10명이며 좌우 각 50명씩 행렬을 이룬다. 방진에서 령은 5령으로 구성하며 이 령이 10명 단위를 움직여 진의 변형을 이루어 간다. 각 령의 1번 병사가 방진의 기수가 되고 변형된 진을 이룰 때 기준점이 된다. 총장을 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진으로 변형하고자 할 때 진법을 구성하는 기본 인원에는 변함이 없다. 기본방진에서 진의 변형을 이루고자 할 때 방진의 선형에서 외부로 확산하는 방식보다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외부로의 이동보다 내부로의 이동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해석 되는 바, 이는 기준점의 유지, 동선거리의 최소화, 편성시간의 단축 면에서 더 효율적 동선체계이기 때문이다.

3.2 원진도(圓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원진도의 기본모형은 정사각형의 기본방진에서 내외 2중 원(圓)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다섯 령의 운용을 살펴보면, 기본방진에서 1령과 2령이 중간 전 방위를 담당하고 4령과 5령이 후 방위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동선의 기본체계는 Fig. 2와 같이 10명 단위 각 령이 기본방진의 안쪽을 향해 최근접 거리로 원을 형성한다. 총장의 역할은 기본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 면에서 살펴볼 때, 외곽의 원을 이루는 령은 1령, 2령, 4령, 5령이며 좌에 40명, 우에 40명이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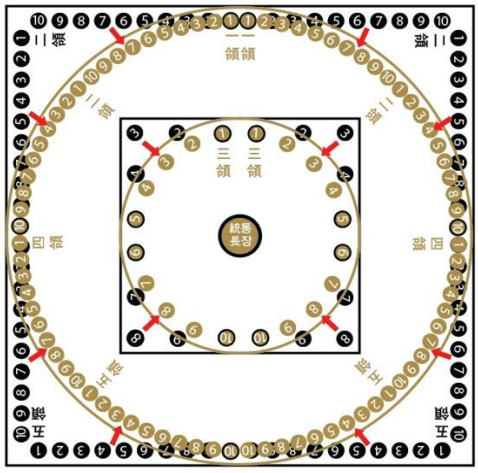

Fig. 2. Circle battle formation(圓陣圖)

내부의 원을 이루는 형태는 3령이 담당하며 좌우 10명씩 두 개의 3령이 한 조를 이루며 원을 그린다. 방진에서 360도 원형을 이루는 원진도로의 변형시 병사들의 동선체계는 기본방진에서 정사각의 중간에 위치한 ①번과 ⑩번 병사가 지준점이 되어 제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다. 외곽 원을 이루는 기준점의 병사는 ①번과 ⑩번으로 총 8명이 기본방진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나머지 72명은 원을 향해 내부로 진입하여 원형을 이루게 된다. 내부의 원은 방진의 ①②⑤⑥번과 ⑩번이 기준점이 되고 나머지 병사가 짧은 이동을 통해 원을 이룬다.

원진도 구성의 특징은 기본 방진에서 짧은 이동을 통

해 2중의 원을 형성하게 되는데 정사각의 진인 방진에서 원형의 진을 이루게 되면 병사 간에 유격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어 손쉽게 2중 원형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원진도는 원 모양의 진형을 통해 최소 길이로 최대의 방어범위와 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3 예진도(銳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예진도의 기본모형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의 각을 이루기 위해 모서리를 갖춘 진의 형태이다. 다섯 령의 운용을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방진의 좌우 1령과 2령이 내부로 진입하며 대각을 이루며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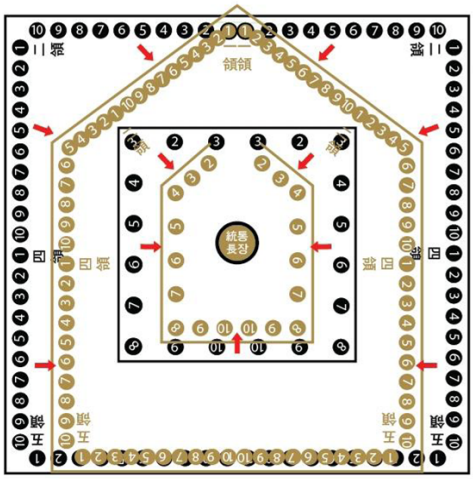

Fig. 3. Direct battle formation(銳陣圖)

동선의 기본체계는 삼각형 모양의 선형을 이루며 여기에 좌우 4령의 절반인원(5명)이 각 1령의 선형과 나란이 합류하여 공격적 모양의 대각선형에 보충되어 배열된다. 내부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3령의 좌우 20명 기본인원이 예진의 모양으로 이동한다. 총장의 역할은 여전히 기본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 면에서 예진도를 이룰 때 기본방진에서의 전방의 1령의 좌우 ①번과 좌우 5령이 제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안쪽을 향해 모두 이동한다.

예진도 구성의 특징은 기본 방진에서 짧은 이동을 통해 앞 대열의 편성이 예리한 공격적 각을 이루도록 형성하는 것이다. 내외 기본방진의 편성대열이 최소이동을 통해 곧바로 갖추게 되는 공격적 진의 형태라 할 수 있다.

3.4 곡진도(曲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곡진도의 기본모형은 Fig. 4와 같이 기본방진에서 윗부분이 안쪽으로 굽어진 형태의 곡선모양의 방패형 2중진 형태이다. 다섯 령의 운용은 기본방진 모형에서 좌우 1령이 모두가 안쪽으로 굽어진 형태로 이동하며 곡진을 형성하고 나머지 ②,③,④령들은 안쪽을 향해 좌우 진입을 진행한다.

이 때 ⑤령은 제자리를 지키며 형태를 잡아준다. 동선의 기본체계는 방진에서 비교적 손쉽게 형성할 수 있는 수비형 진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곡진도는 좌우 ①령의 움직임만으로도 갖출 수 있는 간략한 변형태여서 시간과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형태이다. 총장의 역할은 여전히 기본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은 외곽의 정사각형은 좌우 1령이 곡선을 형성해 주면서 나머지 전체가 안으로 진입하는 동선이며, 내부의 정사각형 진영은 ③령중 앞의 12번이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간략한 이동을 하여 곡진을 형성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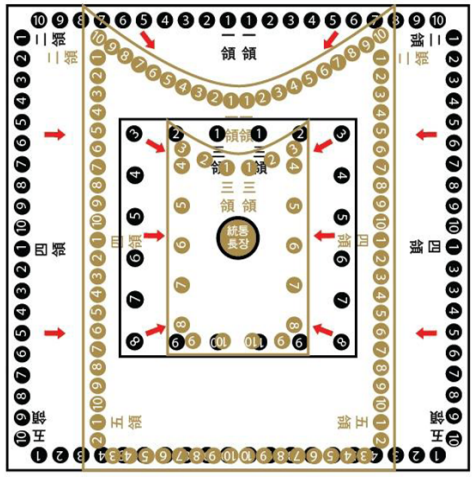

Fig. 4. Round battle formationn(曲陣圖)

곡진도 구성의 특징은 예진도와 마찬가지로 곡진의 형성은 외곽의 ①령과 내부의 ③령의 간단한 보폭의 이동만으로도 손쉽게 형성할 수 있는 방어형 진형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곡진도의 특징은 기본방진에서 꼭지점과 선분(점과 점을 이은 변) 그리고 곡선의 동선을 혼합한 형태를 취한 형식이다.

3.5 현무진도(玄武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현무진도의 기본모형은 Fig. 5와 같이 글자그대로 거북의 형상을 갖춘 형태이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거북머리와 네다리, 꼬리의 형상을 갖춘 형태이다. 다섯 령의 운용 양상은 앞의 다섯 진법과 다르게 현무진도에서는 5개 령이 동일한 수준의 이동을 이루어야 하며, 좌우 대칭과 선형 그리고 유격간격을 잘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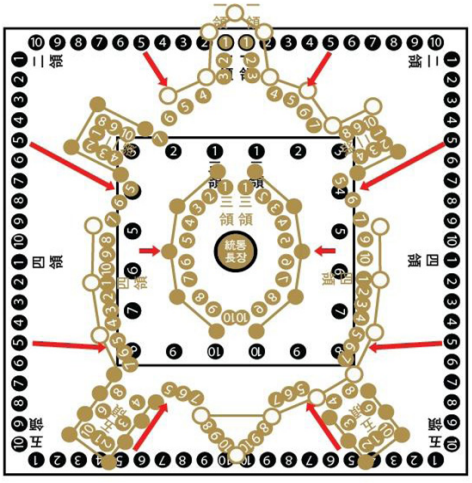

Fig. 5. Turtle battle formation(玄武陣圖)

동선의 기본체계는 방진에서 현무진도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5령 모두 변화무쌍한 이동을 수행해야 한다. 현무진도를 갖추기 위한 이동 동선거리가 기본방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동거리 또한 길지 않으나 현무형태를 유지하기에 곡선과 직선의 위치를 잡기에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방식이다.

총장의 역할은 여전히 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은 이때 기본방진에서 외곽과 내각의 1령의 좌우 1번 병사와 10번병사가 기준점을 그대로 유지하여 앞뒤 간격을 잡아주게 된다. 나머지 내외부 기본방진의 병사들은 모두 기준점을 따라 거북의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이 거북모양의 현무진도는 진법 중 유일하게 5각형의 선형을 갖춘 모습이다.

현무진도 구성의 특징은 5령의 모든 병사가 이동거리와 이동동선에서 제 각각 다른 형태로 형성되며, 진출입 시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루며 형성되는 수비와 공격을 감안한 양수겹장의 진영이라 할 수 있다.

3.6 육화진도(六花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육화진도의 기본모형은 중앙에 큰 원형을 이루고 외곽에 좌우 및 상하 대칭을 이루는 여섯 개의 원주율을 형성하여 꽃잎모양의 진형(陣形)을 갖춘 형태이다. 중앙의 대형 원을 제외한 외곽의 6개원은 10명 단위로 이루어져 원의 지름과 원주(원둘레)는 같다. 이 때 각 외곽원의 중심은 ①번 병사가 담당한다. 다섯 령의 운용은 Fig. 6과 같이 좌우 대칭의 기본방진 편성대열이 1령에서 5령까지 각자 자기 공간에서 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내부의 중심원을 확고하고 크게 유지하기 위해 기본방진에서 내부의 2개령 이외에 외곽의 4개령이 중앙으로 진입하여 내부령과 함께 중심원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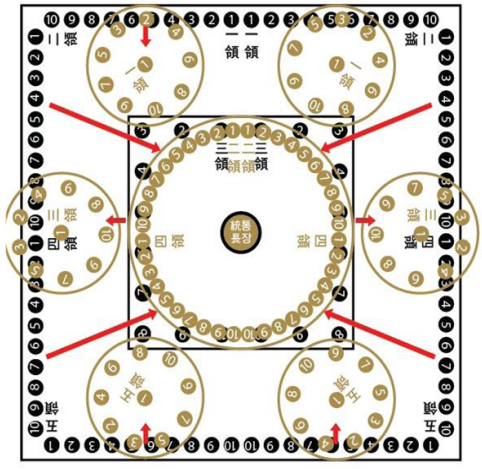

Fig. 6. Six flowers battle formation(六花陣圖)

동선의 기본체계는 각 령의 1번 병사가 중앙으로 투입되어 중심축을 이루고 나머지 9명이 중심원 밖의 외곽의 원형을 형성한다. 인원구성은 40명이 중앙의 대형원을 형성하고 나머지 각 60명이 10명 단위로 상하좌우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총장의 역할은 여전히 기본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은 1번령과 5번령은 제자리를 중심으로 외곽원형을 형성하고, 좌우 3번령의 병사들이 중심원을 이루기 위해 중앙으로 대거 이동한다. 이때 기본방진의 내부 좌우1번과 10번이 기준을 잡고 제자리에서 원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육화진도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육화진도는 기본적으로 원이 지니는 회전력을 무기로 삼는 진법이다. 그 형상은 중앙에 큰 원형을 이루고 외곽에 좌우 및 상하 대

칭을 이루는 여섯개의 원진을 형성하여 꽃잎모양의 진형(陣形)을 갖춘 형태이다. 기본방진에서 병사들은 원을 이루기 위해 4방위 체계와 방위별 원형의 축을 중심으로 대열을 이루게 된다.

3.7 구군진도(九軍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구군진도의 기본모형을 살펴보면, 육화진도가 원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구군진도는 육화진도에서의 원 대신 정사각형을 이루는 8방위 체계의 형태를 갖춘 9개 정사각형 진형을 갖춘 형태이다. 다섯 령의 운용은 육화진도와는 다르게 내부의 정사각형 대열은 기본방진의 내부 2개령이 담당하고 외곽의 정사각형은 8개의 령이 자기위치에서 정사각을 이룬다. 구군진도에서의 동선의 기본체계는 Fig. 7과 같이 정사각 편대로 중앙을 중심으로 팔방위를 향하여 9개 원형 동선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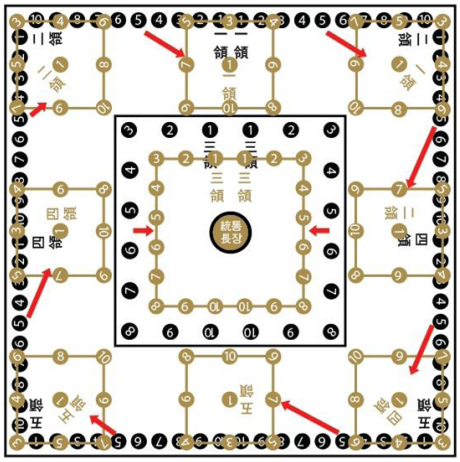

Fig. 7. Nine forms battle formation(九軍陣圖)

총장의 역할은 여전히 방진의 위치 그대로 변함이 없이 중심축의 기능을 한다.

병사의 동선은 좌측 외곽의 1령, 4령, 5령은 6,7,8,9,10번이 움직여 정사각형을 이루고, 2령과 5령은 8,9,10번 병사만 움직여 외곽의 정사각형을 이룬다. 우측의 병사들도 좌측처럼 동일하게 이동하여 외곽의 정사각을 이룬다. 내부의 병사들은 동일하게 안쪽으로 동일한 이동을 통해 밀집도를 강화한다.

구군진도 구성의 특징은 중앙과 8방위(방향)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9개 정사각형의 진을 형성하되 내부에 큰 정사각을 형성하고 있고 외곽의 선형은 작은 정사각의 분리배치를 통해 커다란 정사각의 동선을 유지한다. 이는 공격과 방어의 측면에서 짜임새가 상당히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8방위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9개 정사각형 동선의 형성이나 구성이 복잡하지 않아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운용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8 팔진도(八陣圖)의 구성원리와 체계

팔진도의 기본모형은 Fig. 8과 같이 8방위 체계의 대형을 선과 면적 형태를 배합하여 진을 이룬 형상이다. 즉, 각 령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상이한 형태의 진형을 구성한 3중 방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진형의 유형은 4가지 형상이며 각 형상마다 구성인원이 다르다. 따라서 8방위 선상에 선적인 배치와 면적인 배치에서 구성인원은 5인과 10인으로 그 구성을 배합하고, 정사각과 직사각의 행렬구성은 5인 1조의 편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 중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방어면에서 가장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3중방어 진형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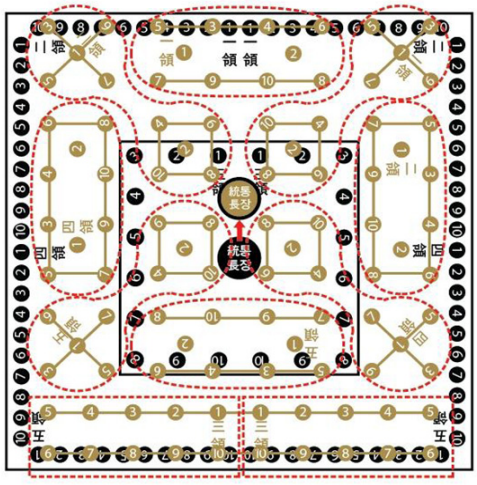

Fig. 8. All-rounder battle formation(八陣圖)

팔진도에서 다섯 령의 운용은 각 령은 반반씩 나누어 형태를 달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령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5인1조의 십자를 이루어 진을 형성한다. 기본적인 형태는 총장을 중심으로 대각의 방위를 이루고 외곽은 면과 선 그리고 점을 이룬다. 외곽의 꼭지점은 점의 형태로 구성한다. 동선의 기본체계는 각 령마다 반분되어 직사각과 정사각, 그리고 십자를 이루는 위치를 찾아 이동한다. 진법 중 가장 복잡한 이동 동선을 이룬다.

총장의 역할은 여타 진법과 다르게 유일하게 총장이

위쪽으로 중심이동을 하게 된다. 병사의 동선은 각 령의 인원이 분반되고 이동 동선이 다르며 이루는 형태도 달라서 기본방진의 기본인원에 변화가 생길 때 팔진도를 형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히 철벽방위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기본방진의 기본인원이 무사하고 잘 훈련되어 있을 때만 갖출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병사는 자기 소속의 령 이외에 다른 령과 협업하여 진을 구성해야 하므로 진 운용의 성패는 훈련에 달려있다고 평가된다. 공격을 하더라도 뚫기 어려운 형태이지만 각 령의 위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팔진도 구성의 특징은 진법 중 8방위 체계를 고려하되 면과 선, 외곽선과 대각선을 가장 빈틈없이 짜놓아 중층적 3중 방어체계를 갖춘 형태이다. 진형의 동선유형은 십자형 대각 4개와 직사각형 5개, 정사각형 4개 등 3가지 사각형 형태를 취하면서 선적인 배치와 면적인 배치를 배합하되 외곽의 동선은 정사각형의 선형을 유지한 형태이다. 병사들은 진의 형태인 방위체계 속의 위치와 편성모양, 구성인원, 진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구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병사들간의 이동거리와 동선운영체계가 복잡하여 기본방진에서의 자기위치를 기본으로 14개 동선체계를 갖춰 이동하게 된다. 팔진도가 외형은 정사각을 유지하되 내부는 대각선과 직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 가장 복잡한 동선체계와 구성을 갖춘 진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9 활용방안

오늘날 진법의 활용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기획한 '화성의궤 3D 디지털 복원사업'의 디지털이미지와 KBS가 제작한 영상다큐멘터리「의궤, 8일간의 축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배치도상 진법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교육용 자료로는 War게임 제작사례가 있고, 교육용 교재로서 한국콘텐츠닷컴에 업로드 된 "진법의 모든 것"이라는 소개글이 있다. 또한 베틀넷 등 전쟁게임과 시뮬레이션, RPG 등의 게임소재로 일부 진형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진법의 고전인 1차 사료『이진총방』의 원전해석을 토대로 각 구성요소를 기호화하여 진법별 비교 배치도로 디자인 하였고, 그 진법의 변형과정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연구성과는 현대의 군사전술 활용과 생활문화콘텐츠 개발 면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적으로는 해군의 함대진형과 공군의 비행편대진을 짜는 원리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육군의 경우에도 기동부대와 보병의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해군의 경우, 함대진형은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진형을 이루어 운용되고, 공군의 비행 편대진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진형을 이루어 편대비행하게 된다. 2차원공간에서 현대 해군의 함대진형은 평상시 일자진을 운용하다가 적이 출현하면 원형진을 기본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진과 원형진 이외에 고전진법을 응용하면 다양한 진형을 구축할 수 있어서 방어력과 공격력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해군에 활용가능한 고전진법은 원진과 예진, 곡진의 형태이다. 대규모 전투에서 모함과 큰 함선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방어가 필요할 경우 고전진법 중 육화진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에 집중하고, 해상방어력을 손쉽게 갖출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진형이 앞서 밝힌 육화진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진법은 해군함대의 훈련상황과 실제 전투상황에서 활용가능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전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미사일 공격의 열추적(IR)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전진법 중 원진과 육화진을 갖추고 채프(Chaff, 전자파 반사 알루미늄 조각)를 활용한 가상의 공중함대를 운영하여 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공군의 경우, 비행 편대진을 짤 때 3차원공간에서 3차원 편대를 짜야하는데 배치구도에 따라 공격력과 방어력 및 자기피해의 문제가 생긴다. 비행 중에 전투상황에서 화력과 공격방향을 선택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아군기의 피해를 막는데는 고전진법 중 원진과 예진, 곡진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진형이다.

육군의 경우, 기동부대와 보병의 진형 구축시 육지가 공간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혼란을 최소화 할 진형이 필요하다. 진법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간지체를 초래하게 된다. 육군의 훈련과 전투과정은 해군과 공군과는 달리 고전진법 전체의 진형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전진법은 산과 평야를 아우르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진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고전진법은 육해공군의 훈련과정과 전투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의 편성원리

로써 활용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곧 현대전에서 해군함대와 비행편대 그리고 보병과 기동부대 운용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자기방어력과 화력집중, 공격방향을 집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배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고전진법은 현대의 생활문화와 군사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활용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전쟁게임(War Game)에서 시뮬레이션 훈련과 놀이를 위해 진법을 적용하여 만들 수 있다. 또한 게임산업(Game Industry)에서 게임스토리와 게임프로그램 구성시 전술구사와 대결을 위한 구성원리로 응용할 수 있다. 나아가 고전진법의 원리는 국가의 상징을 표현하는데도 활용가치가 높다. 즉, 의궤반차도를 복원하여 국왕행렬의 행렬도와 진형을 구성하여 그 위용을 드높이는데 유용하다. 군사행렬과 국왕행렬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배치상의 진법을 활용하게 되므로 군사원형 복원작업을 통한 국가브랜드이미지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교육용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한 바 진법원리를 3D 이미지로 개발하여 체험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대중이 동원되는 매스게임과 놀이문화를 짜는데도 응용할 수 있다. 고전진법이 배열과 이동동선 체계를 구성하는데 유용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론에서 분석한 고전진법의 구성원리와 운용체계는 현대에 있어서도 육해공군의 훈련과 전투에도 응용이 가능하며, 군사문화콘텐츠 개발과 현대인의 생활문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원리이자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후반 정조대 편찬된 호위군병인 무예별감의 훈련용 병서인『이진총방』에 나타난 고전 진법에 대한 기본모형을 재구성하여 동선의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8방위 체계 내에서 운용된 기본방진을 토대로 각기 변형을 이루는 원진도, 예진도, 곡진도, 현무진도, 육화진도, 구군진도, 팔진도 등 각 진법들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등의 고전적인 진법이 조선의 군사 훈련에서 실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당시 편찬된『병학지남』등의 각종 진법서에 나타난 고전 진법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 이론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진법 그림에서도 부대 단위만 기호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어서 의문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결과, 각 진법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그 실체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훈련과 전술운용에서 가장 효과적인 진형의 구성이자 동선체계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진법별 기본모형의 구도와 동선의 운영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진법에 있어 외곽선의 구성과 동선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정사각, 직사각, 원형 그리고 5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부 진형의 구성과 동선은 5가지 선형을 활용하는 바 직사각, 정사각, 대각선, 곡선, 원형의 동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진법별로 기본모형과 동선체계를 살펴본 결과, 진법의 기본대형인 방진의 기본모형은 정사각형 구조의 내외 2중의 행렬진 동선형태를 지녔으며 모든 진법의 변형형태는 바로 방진에서 출발한다.

진법운영의 모형에 있어 원진도 구성의 특징은 기본방진에서 짧은 동선이동을 통해 2중의 원형을 형성하고 병사 간 유격을 좁혀 밀집도를 높였다. 예진도의 기본모형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의 각을 이루기 위해 모서리를 갖춘 형태로, 내외 기본방진의 편성대열의 최소이동으로 형태를 이루는 공격적 진의 형태이다. 곡진도의 특징은 곡선모양의 동선을 갖춘 방패형 2중진 형태로 그 특징은 기본방진에서 꼭지점과 선분 그리고 곡선의 동선을 혼합한 형태를 취한다. 현무진도는 거북모양의 진형으로, 동선의 기본체계가 방진에서 5령 모두 변화무쌍한 이동과 중앙 상하위선을 반으로 나누어 좌우 균형의 대비동선을 형성하여 완성한다. 현무진도는 진법 중 유일하게 5각형의 선형을 갖춘 모습이다. 육화진도의 기본모형은 중앙에 큰 원형을 이루고 외곽에 좌우 및 상하 대칭을 이루는 여섯개의 원주율을 형성하여 꽃잎모양의 진형(陣形)을 갖춘 형태이다. 중앙의 대형 원을 제외한 외곽의 6개원은 10명 단위로 이루어져 원의 지름과 원주(원둘레)는 같다. 구군진도 구성의 특징은 중앙과 8방위(방향)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9개 정사각형의 진을 형성하되 내부에 큰 정사각을 형성하고 있고 외곽의 선형은 작은 정사각의 분리배치를 통해 커다란 정사각의 동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팔진도 구성의 특징은 진법 중 8방위 체계를 고려하되 면과 선, 외곽선과 대각선을 가장 빈틈없이 짜놓아 중층적 3중 방어체계를 갖춘 형태이다. 팔진도의 동선유형은 십자형 대각 4개과 직사

각형 5개, 정사각형 4개 등 3가지 사각형 형태를 취하면서 선적인 배치와 면적인 배치를 배합하되 정사각형의 선형으로 외곽을 구축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고전적인 진법이 조선의 군사훈련에서 실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온 역사적 상황에서 그 군사적 의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전진법 중 오위진법의 체계성을 규명하고 그 구성원리와 운영체계를 해석함으로써 복원의 가능성을 여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나아가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전술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연구성과의 활용방안으로는 현대전에서 해군의 함대편성과 공군의 비행편대 그리고 육군의 보병과 기동부대 운용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기방어력과 화력집중, 공격방향을 집중하는데 적용 가능한 고전진법의 응용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교육소재 그리고 전쟁게임 등 군사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토대로 고전진법이 우리의 생활문화에 어떻게 투영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진법과 연관된 연행예술과 전통놀이문화의 구성원리가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Cha-dae, HA. Advances in Military Policy and Military Maneuver Manuals in Early Joseon. (『Military History』 Vol. 19), 1989; Gwang-su, KIM. Analysis of 「Military Formations」by Jeong Do-jon (『MIlitary Academy Research Articles Collection』 Vol. 50), 1996; KIM, Dong-gyeong.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Tradi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Military Training of the Jinbeop, 『Military History』 Vol.74, 2010.

[2] Young-koo, ROH. Analysis of Military Texts and Strategies in Late Jose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l University, 2002; Young-koo, ROH. 『Study of Military Texts and Strategies in Late Joseon』, Seoul. Ge-mool Publishers, 2016.

[3] Eulpyo, HONG. Qī Jì-guāng`s Yuānyāngzhèn in the later Míng Dynasty and the principle of the Bǎizhèn. 『Military History』 Vol. 84, 2012.

[4] Gwang-ja, PARK. Study of the Layout for Chinese and Korean Court Music in the Canon of Music. (Woos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Son-suk, SOHN. A Study on Records of Jeongjae Dance Carried in 『Akhak Guebeom』, The Journal of DSDH, Vol. 11, 2006.

[5] Deok-won, CHOI. An Essay on Nong-ak(the Instrumental Music of Peasants) in Nam-do (Suncheon University Research Articles Collection, Vol. 5), 1986; Yoon-seon SEONG/ Soshim, BAE. The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ongmool-goot and Battle Formations, The Journal of DSDH, Vol. 17, 2009.

[6] Gyeong-man, CHO. Body, Dance and Pungmul as Expressions of Social Being and Social Relation, The Journal of DSDH, Vol. 15), 2008; Bi-han, CHEN. "Jumping Drum Dancing" in Taiwan, Journal of Korean Dance History, Vol. 13, 2012.

[7] Byung-woong, KWON / Young-koo, ROH. The Study of the Early Joseon Era's Battle Formation for the Restoration of Cultural Archetype : Based upon 『Bird Cloud Battle Formatio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 49, 2014.

[8] Young-koo, ROH. Restoration of 'Formation Maneuvers of the Five Commands' and Royal Inspection Training Protocols (Documents and Interpretation, Vol. 13, 2000.

[9] Dong-joon, KIM. Index of Korean Publications in the Jangseogak Archives – Military, Academy of Korean Studies, Seongnam, pp. 356-358, 1993.

[10] 『The Handbook of State Affairs』, 「Military Administration Chapter」, Training Corps, Troop Numbers

[11] Young-koo, ROH. 『*Byonghakjinam' - The Guide to Military Matters*』, the Essential Manual for Military Training in Late Joseon, <The Arts and Sciences in the Jeongjo Era>, <Documents and Interpretation Publishing. Seoul, Korea>, pp. 218-291, 2000

[12] Young-koo, ROH. Study of Military Texts and Strategies in Late Jose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l University) pp. 196-200, 2002.

[13]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Records of King Yeongjo』 (12th Year of King Yeongjo, February, Jeongchuk Day), Vol. 41.

[14]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Book 99, (12th Year of King Yeong-jo, Lunar May 3rd)

권 병 웅(Kwon, Byung Woong) **[정회원]**

- 2005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예술경영학회 상임이사

<관심분야>
콘텐츠산업정책, 공간콘텐츠, 문화정책